

# 러시아의 코로나19 사태와 식량안보1)

(원문) 長友謙治(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허 덕\*, 김태련\*\*

## 1. 머리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은 러시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러시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2020년 러시아 농업부문은 기상조건 악화의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한 지역이나 품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곡물 수확량은 201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를 기록하였다. 농업생산액은 가격상승과 맞물려 전년보다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농산물 무역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생활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농산물 수출촉진 정책에서 식량안전보장 중시의 정책으로 정책의 방침을 전환하였다. 러시아는 2020년 4월~6월(2019/20 농업연도 제 4분기<sup>2)</sup>)에는 곡물의 수출량 쿼터를 도입하였다. 더불어 같은 해 말에는 곡물, 식용유, 설탕과 같은 기초식품 가격 상승이 문제가 되자 긴급대책으로서 2021년 1월부터 유량종자 수출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어 2월부터는 곡물 수출규제 조치 도입을 결정하면서, 무역 규제를 더욱 강하게 실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러시아 경제·농업 동향에 대해 파악하면서, 이들 농정상의 중요한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연도’ 중 ‘2020년도’와 같이 단년도의 형태로 기술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연도이며, ‘2019/20 농업연도’와 같이 두 가지 년도에 걸친 형태로 기술하는 것은 러시아의 농업연도이다. ‘농업연도’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연도’를 생략하기도 한다. 이들 이외의 연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설명한다.

1) 이 글은 ‘長友謙治, [第5章] ロシアーコロナ禍と食料安全保障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5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1.3([https://www.maff.go.jp/primaff/kanko/project/attach/pdf/210331\\_R02cr05\\_05.pdf](https://www.maff.go.jp/primaff/kanko/project/attach/pdf/210331_R02cr05_05.pdf))를 바탕으로 번역·보완 수정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 허 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김태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2) 러시아의 곡물연도 또는 농업연도는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이다.

## 2. 2020년 러시아 경제

### 2.1. 거시경제<sup>3)</sup>

#### 2.1.1. 코로나19 유행과 마이너스 성장

2015년 이후 러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 2015년에는 원유가격 침체와 우크라이나 위기에 수반된 경제제재 등의 영향으로 -2.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2016년 0.2%, 2017년 1.8%, 2018년 2.8%로 서서히 성장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2019년에는 원유 등 수출액 감소와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둔화 등을 배경으로 성장률은 2.0%로 낮아졌으며, 2020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은 -3.0%로 떨어졌다.

이처럼 2020년 성장률이 떨어진 주된 이유로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개인 소비와 투자 축소, 원유 가격 하락과 생산 축소를 들 수 있다. 러시아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과 이에 대한 지출항목별 기여도 추이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서 2020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 변화 요인을 살펴보자.

2020년 러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제1분기(1~3월)에는 +1.4%였다. 하지만, 제2/4분기(4~6월)에는 -7.8%로 대폭 떨어졌다. 이러한 최대 요인은 가계 소비의 대폭적인 축소이며, 이에 뒤잇는 마이너스 요인이 투자(총고정자본 형성) 감소였다.

러시아에서는 코로나19 대책으로서 푸틴 대통령이 3월 28일~5월 11일을 비노동일(非労働日)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록다운(lock-down, 봉쇄령)이 실시되었고, 이것이 제2분기 중 가계소비와 투자활동이 위축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 후 록다운은 단계적으로 해제되어 실질 GDP 성장률은 제3/4분기(7~9월) -3.5%, 4분기(10~12월) -1.8%로 마이너스 폭이 다소 축소되었다. 그 중에서 가계소비 비용이나 투자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러시아 경제의 회복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최초로 발견된 것은 2020년 1월 31일이었다. 그러나 신규 감염자 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3월 후반 이후였다. 확산 방지 대책으로서 록다운이 실시된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신규 감염자 수는 5월에 첫 절정에 달하고(5월 11일 11,656명), 그 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8월말 무렵부터 다시 증가가 진행되어 12월에는 매일 2만 5천 명이 넘는 수준이 이어졌다.

20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보면, 누계 감염자 수는 4,442,492명으로, 미국, 브라질, 인도, 프랑스에 이어 세계 제5위, 누계 사망자수는 95,010명으로 세계 제7위이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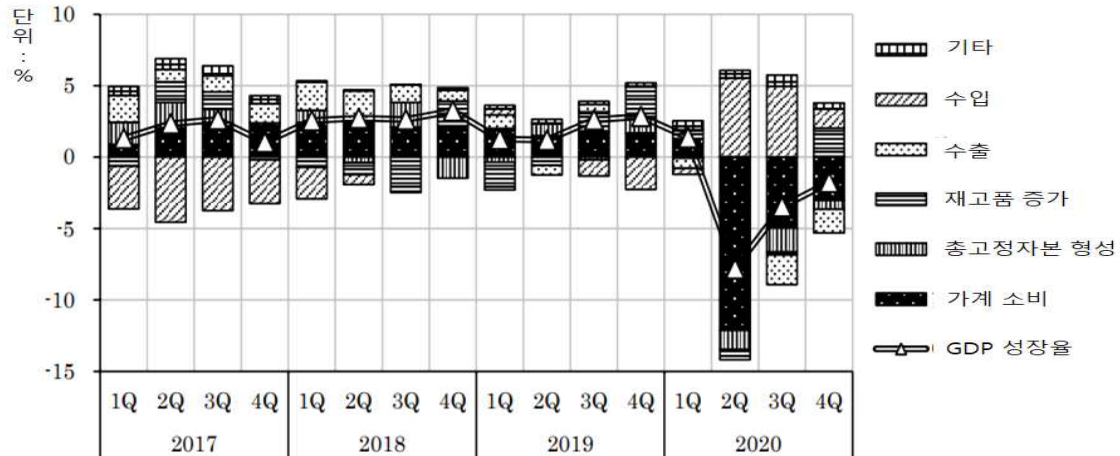
3) 이 부분은 金野(2020a)와 (2020b) 및 田畑(2020)을 참고하였다.

4) 2021년 7월 26일 14:00집계 기준으로는 누계감염자수 6,049,215명으로, 미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제4위, 누계 사망자수는 151,352명으로 미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페루에 이어 세계 6위이다.(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규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21년 3월 시점에서는 여전히 매일 9천 명 정도가 되고 있다<sup>5)</sup>(Johns Hopkins University).

<그림 1> 러시아의 지출항목별 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 %)



자료: 러시아 연방통계청 자료에서 金野(2020b) 및 田畑(2020)을 참고하여 長友謙治 작성. 長友謙治 [第5章] ロシア—コロナ禍と食料安全保障—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5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1.3에서 재인용

### 2.1.2. 유가 하락과 루블화 약세

2020년의 러시아 경제에 대하여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는 원유 가격 급락과 협조 감산 실시를 들 수 있다. <그림 2>에 원유 가격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루블화의 대미 달러 시세 동향 을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서 사태의 추이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는 1배럴 당 원유가격은 50~60달러대로 대체적으로 안정적 인 경향을 보였다. 루블화의 달러 대비 시세도 대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즉, 2019년 1월 1달러당 67루블에서 같은 해 12월 63루블로 완만하게 루블화가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2월 하순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석유 수요 감소 전망이 나왔고, 이와 더불어 OPEC와 러시아 등과의 협조 감산협상 결렬 을 계기로 하여 유가가 급락하였다(2020년 2월 51달러 → 4월 18달러<sup>6)</sup>), 이에 따라 루블화에 대한 달러 시세도 대폭 하락하였다(2020년 2월 64루블 → 4월 75루블<sup>7)</sup>).

5) 2021년 7월 26일 14:00 집계 기준, 전일 대비 신규확진자 23,517명.(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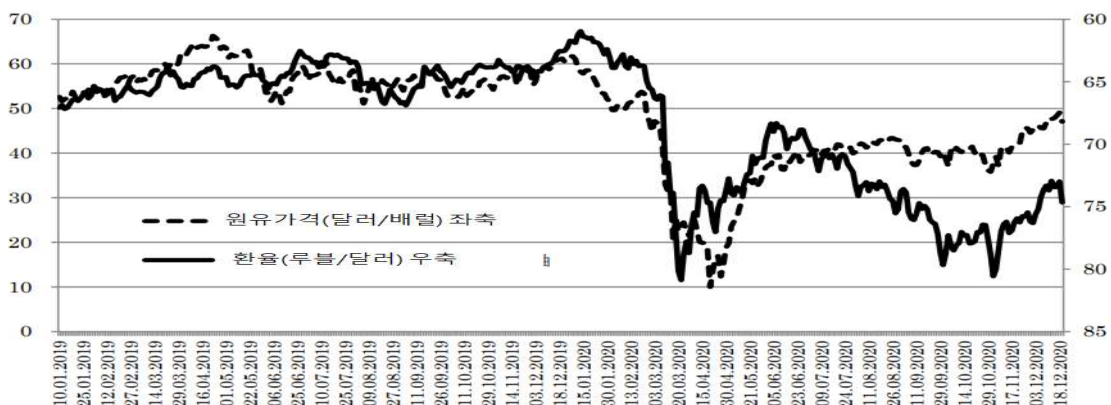
6) 브렌트유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2020년 5월 이후 원유(브렌트유) 가격은 줄곧 상승하여 9월에는 40달러 대, 12월에는 50달러 가까이 올랐으며, 2021년 3월 60달러대 초반의 가격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세로 꺾였다.(출처: 네이버블로그 피어슨 블로그, '2021년 6월 국제유가 추이와 전망', 2021년 6월 17일 게재)

7) 2020년 11월 2일 80.58루블을 최고점으로 하여, 2021년 5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7월 26일 기준 환율 74루블(출처: 환율플러스 앱)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4월에는 OPEC와 러시아 등과 협조 감산 합의가 성립되어 5월부터 실시로 옮겨졌다. 이에 따라 원유가격은 5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12월에는 47달러까지 회복되었다. 그러나 전년에 비해 낮은 원유가격과 협조 감산에 의한 생산량 축소화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액은 전년보다 대폭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제3분기 및 제4분기에는 수출 감소가 가계소비 감소로 이어져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그림 1 및 그림 2 참조). 당시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인은 원유 등 광물성 연료 수출액 감소였다.

<그림 2> 유가와 루블 시세 추이 (2019년 1월~2020년 12월)



자료: USEIA(원유가격 Cushing, OK Crude Oil Future Contract 1), 러시아연방중앙은행(환율)에서 長友謙治 작성. 長友謙治, [第5章] 러시아-코로나禍と食料安全保障―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5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1.3에서 재인용

한편, 루블화의 대달러 시세는 2020년 6월(69루블)까지는 유가 상승에 연동하여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원유 가격과는 괴리하는 형태로 하락하였다(10월 78루블, 그 후 약간 상승하였지만, 12월 74루블). 6개월 이후의 유가 추이와 괴리된 루블화의 원인에 대해 카네노(金野)(2020b)는 러시아를 둘러싼 일련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을 지적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루블화의 약세는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는 국제가격 상승과 함께 곡물 등의 수출이 가속화되는 요인이 되었다.

### 2.1.3.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유행 등에 따른 경제 정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한편으로 물가가 급등하였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2020년 12월에 곡물, 식용유, 설탕의 일부 수출 제한을 포함한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을 결정하였다.

8) 金野雄五(2020b), 「回復が遅れるロシア経済-国産ワクチンを開発も, 普及には遅れ」, 『みずほインサイト 欧州』, 2020년 12월 16일호, みずほ総合研究所.

그 이전의 상황을 통계치로 구체적으로 보면, 실질가처분소득은 2020년 3분기(7~9월)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95.2%(2분기에는 91.6%)로 감소하였고, 실업률(8~10월 평균치)은 2019년 4.5%에서 2020년 6.3%로 상승하였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11월의 전년 동월 대비)는 종합지수 104.4%, 식품지수가 105.8%로 러시아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4%)를 상회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설탕 165.2%, 해바라기유 123.8%, 분쇄곡물·대두 120.9%, 파스타 110.8%, 빵류 106.8%와 같이 국민생활상 중요한 기초식품에서 가격 상승률이 특히 높아지고 있었다(수치는 모두 러시아 연방 통계청 웹사이트<sup>9)</sup>).

러시아 연방정부가 12월에 곡물 등의 가격 급등 대책을 결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상황이 내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심각성을 띤 염려가 있었다(4.2. 부분 참조).

#### 2.1.4. 플러스 성장을 유지한 농업

2020년에 농업 총부가가치 성장률은 0.5%였다<sup>10)</sup>. 농업은 2012년에 한발 등에 의한 흉작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된 후에는 플러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러시아 경제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2015년 및 2020년에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였다(표 1)

2020년 농업 총부가가치액이 플러스 성장을 한 이유는 곡물 수확량이 2017년도에 이은 사상 제2위의 풍작이었다는 데 있으며(3.의 (1) 참조), 이 외에도 루블화 약세와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곡물과 유량종자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표 1〉 러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과 농업 성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질 GDP 성장률 (%)	- 2.0	0.2	1.8	2.8	2.0	- 3.0
농업 성장률 (%) <sup>주)</sup>	1.9	2.0	1.7	1.0	3.4	0.5

주: ‘농업성장률’은 경종농업·축산업·수렵업·관련 서비스업의 총부가가치액의 전년증가율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長友謙治, [第5章] ロシア—コロナ禍と食料安全保障—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  
 研資料 第5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1.3에서 재인용

9) 러시아 연방 통계청 웹사이트 주소: rosstat.gov.ru

10) ‘농업 성장률’은 총부가가치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다. 정확하게는 다른 산업을 포함한 산업구분의 수치이며, 2019년도의 컨트리 리포트에서 ‘경종농업 및 축산업, 수렵업 및 이들 부문의 관련 서비스업’을 이용하고 있다.

## 2.2. 무역

러시아의 무역은 석유·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광물자원 수출에 의하여 고액의 무역 흑자를 획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흑자액은 주로 원유 수출 동향에 따라 변동한다. 2020년의 무역흑자 흑자액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여 1,050억 달러(전년대비 42% 감소)가 되었다. 이는 수입측면에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러시아 경제 정체와 환율 하락의 영향에 따른 수요 축소로 수입 총액이 약간 감소한 2,314억 달러(전년대비 5% 감소)가 되었다. 반면, 수출측면에서는 원유가격 하락과 그 후의 협조 감산 실시로 원유 등의 수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을 주된 요인으로 하여, 수출총액이 3,364억 달러(전년대비 21% 감소)로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표 2 참조).

〈표 2〉 러시아의 무역 구조

(단위: 억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액	총액	4,974	3,435	2,857	3,573	4,503	4,244	3,364
	농수산물	190	162	171	207	250	248	296
수입액	총액	2,871	1,827	1,824	2,279	2,387	2,443	2,314
	농수산물	400	266	251	290	298	300	297
차액	총액	2,103	1,608	1,032	1,294	2,116	1,801	1,050
	농수산물	- 210	- 104	- 80	- 82	- 48	- 51	- 1

자료: 2019년까지는 각 년도의 러시아연방 세관청 ‘통관통계’, 2020년은 같은 청의 웹사이트에서 長友謙治 작성. 長友謙治 [第5章] ロシア—コロナ禍と食料安全保障—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5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1.3에서 재인용

러시아의 농수산물 무역에서는 곡물 등과 같은 원료 농산물을 수출하는 한편, 식육이나 가공식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을 수입함으로써 수지(收支)는 수입 초과를 계속해 왔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는 아직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루블화 약세와 유럽 각국의 경제 제재에 대항하는 식품 수입금지 조치<sup>11)</sup> 발동에 따라 농수산물 무역적자액이 크게 감소하여 왔다.

2020년에는 루블화 약세와 곡물 등의 국제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하여 농수산물 수출액이 296억 달러로 증가(전년대비 19% 증가)한 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정체와 루블화 약세를 배경으로 하여 농수산물 수입액은 297억 달러로 감소(동 1% 감소)하여, 농수산물 무역적자액은 대폭 감소하였는데, 농수산물 무역적자액은 과거 최소인 1억 달러였다(농수산물 무역 관련 상세내용은 3.2. 부분 참조).

11) 해당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2020년 12월에 추가로 1년간 연장이 결정되어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다(4.3. 부분 참조).

### 3. 2020년 러시아의 농업생산·농산물 무역동향

#### 3.1. 2020년의 농업생산동향

##### 3.1.1. 경종농업

러시아의 주요 경종작물 수확량 추이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하에서는 표를 중심으로 주요 작물에 대하여 2020년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수확량 수치는 러시아 연방 통계청 웹사이트).

<표 3> 주요 경종 작물 수확량

(단위 : 만 톤)

	연평균치							2016	2017	2018	2019	2020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곡물·두류	10,420	8,796	6,510	7,883	8,518	9,361	12,483	12,068	13,554	11,325	12,120	13,346
밀	4,355	3,817	3,460	4,495	4,226	5,354	7,837	7,335	8,600	7,214	7,445	8,590
라이맥	1,245	876	538	488	347	277	216	255	255	192	143	238
보리	2,202	2,377	1,421	1,777	1,660	1,683	1,940	1,797	2,063	1,699	2,049	2,094
호밀	1,258	1,050	655	561	494	483	470	477	546	472	442	413
옥수수	330	184	141	215	420	1,023	1,361	1,528	1,321	1,142	1,428	1,388
기타 곡물	593	238	192	174	217	307	309	383	343	264	278	279
두류	443	254	132	174	156	224	349	294	426	344	334	345
공예작물												
사탕무	3,318	2,166	1,402	1,853	2,712	4,088	4,671	5,132	5,191	4,207	5,435	3,392
유지작물	-	380	381	526	798	1,254	1,926	1,627	1,650	1,953	2,277	2,125
그중 해바라기	312	310	333	451	631	884	1,259	1,102	1,048	1,276	1,538	1,331
대두	65	47	31	48	87	199	389	314	362	403	436	431
채종	-	14	13	20	65	110	183	100	151	199	206	257
기타	-	9	5	7	14	61	96	111	88	76	97	105
감자	3,588	3,681	3,183	2,836	2,576	2,525	2,165	2,246	2,171	2,239	2,207	1,961
채소	1,117	1,023	1,051	1,123	1,168	1,289	1,369	1,318	1,361	1,369	1,410	1,386

주 1: 사료작물(목초 등)에 대해서는 계제를 생략하였음.

2: 1986-1990년 ‘보리’는 봄보리만, 호밀은 겨울호밀만의 수치이며, 겨울보리, 봄호밀은 ‘기타곡물’에 포함되어 있다. 1991년 이후에는 ‘보리’, ‘호밀’ 모두 겨울작물·봄작물 모두를 포함한 수치임.

3: 유량종자의 수치는 2010년까지는 건조 조정 전, 2011년 이후는 건조 조정 후.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웹사이트 등에서 長友 작성. 長友謙治, [第5章] ロシア—コロナ禍と食料安全保障—,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5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1.3에서 재인용

2020년 러시아의 곡물·두류(이하 ‘곡물’)의 총 수확량은 1억 3,346만 톤이다. 이는 2017년(1억 3,554만 톤)에 이어 사상 두 번째의 풍년 수준이다<sup>12)</sup>. 러시아의 곡물 총 수확량이 1억 톤을 웃도는 것은 2014년 이래 7년 연속이다. 곡물 총 수확량의 5년 평균치를 보더라도, 2016~2020년 연간 평균치는 1억 2,483만 톤으로, 소련 말기인 1986~1990년 평균치인 1억 426만 톤을 넘어섰다.

밀의 2020년 수확량은 사상 최고였다. 2017년(8,600만 톤)에 육박하는 8,590만 톤에 이른다. 러시아의 밀 생산은 주로 유럽과 러시아 중남부에서 생산되는 겨울밀과 주로 시베리아, 우랄 등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봄밀로 이루어진다. 2020년에는 겨울밀 파종 면적이 전년보다 증가된 반면<sup>13)</sup>, 남부의 산지가 따뜻한 겨울·적은 강설량으로 인한 토양수분 부족, 초봄의 한기로 인한 고사 등 기후 불순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 특히, 대산지인 스타블로폴리 지방(북카프카스 연방관구)이나 크라스노다르 지방(남연방관구)에서는 수확이 대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중앙연방관구의 남부나 불가연방관구 연안에서는 5월~7월에는 비가 내려 풍년이 들었고, 봄밀은 시베리아 동부에서 이례적인 고단수로 증수되었다. 이 때문에 연방 전체에서는 높은 수준의 밀 수확량을 달성하였다<sup>14)</sup>.

기타 주요곡물에서는 보리 수확량이 2,094만 톤으로 전년을 웃돌았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옥수수는 파종 면적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였다<sup>1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를 중심으로 하여 여름철 고온·건조 등의 영향으로 단수가 저하되어 수확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1,388만 톤이 되었다.

유지작물의 2020년 수확량에 대해 살펴보면, 해바라기가 1,331만 톤으로 전년보다 13.4% 감소하였으나, 전년은 사상 최고의 풍년이었기 때문에 2020년 수확량은 2016~2020년의 5년 평균치보다는 4.7% 웃도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극단적인 흉작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수확량 감소의 원인으로서는 주요 산지에서 여름철 이후 건조한 기상 불순이 지적되고 있다.

기타 주요 유지작물 수확량은 대두가 431만 톤으로, 사상 최고였던 전년도에 비해 1.2% 감소하였지만, 2016~2020년 평균치에 비해서는 9.5% 증가하였으며, 채종은 257만 톤으로 전년대비 24.9% 증가함과 동시에 2016~2020년 평균치에 비해서도 36.2% 증가한 수준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사탕무의 2020년 수확량은 3,392만 톤으로 2014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최근 생산과잉으로 인한 설탕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2020년에는 사탕무 경작면적이

12)러시아 통계치에는 2014년 이후에는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리아(연방 구성 주체로는 크림리아 공화국 및 세바스토폴리)의 값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 러시아 연방 전체의 수치를 나타낼 때 특별히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3년 이전에는 크림리아 값을 포함하지 않으며, 2014년 이후에는 크림리아의 값을 포함하는 수치를 게재하였다.

13)2020년 러시아 연방의 밀 파종 면적은 겨울밀 1,692만 ha, 봄밀 1,253만 ha로(모두 EMISS에 의함), 겨울밀은 전년대비 6.8%, 봄밀은 전년대비 2.2% 증가하였다.

14)2020년 곡물 브랜드에 대해서는 쉬소예바(2020a), 쉬소예바(2020b) 및 가넨코(2020c)를 따랐다.

15)2020년 러시아 연방의 옥수수 파종 면적은 286만 ha로(EMISS),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다.

16)2020년의 유지작물의 작황에 대해서는 쉬소예바(2020b) 및 가넨코(2020b)에 따랐다.

전년보다 20% 가까이 감소하였다는 점 외에도<sup>17)</sup>, 따뜻한 겨울·적은 강설량으로 인한 토양수분 부족, 봄 추위에 의한 고사와 풍해, 여름철 이후 고온 건조 등 불순한 기상조건의 영향에 의해 주산지인 중앙연방관구나 남부연방관구 등에서 단수가 저하된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최근 설탕 생산의 증가로 설탕의 순수출국이 되었다. 하지만, 2020/2021년 사탕무 수확량 감소로 대량의 설탕 수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처로서 기대되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인근 국가에서도 원료가 부족한 상황 이어서, 공통적으로 설탕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8)</sup>.

감자 수확량은 1,961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러시아의 감자 수확량은 심각한 가뭄을 겪었던 2010년(1,850만 톤)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수확량은 이에 뒤잇는 낮은 수준인 것이다. 채소의 경우, 식품 수입금지 조치 적용이 시작된 2014년 이후 수확량 증가가 계속되어 왔으나, 2020년 수확량은 1,386만 톤으로 전년을 밑돌았다.

### 3.1.2. 축산업

<표 4>는 러시아의 축산물 생산량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러시아의 축산물 생산은 1990년대 극적인 축소를 거쳐 200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인 회복과정에 들어갔다. 동 시기 회복·확대가 진행된 축종은 주로 양계·양돈이었다. 2014년에는 루블화 가치 하락과 식품 수입금지 조치가 시작되었고, 러시아의 식육·육제품이나 우유·유제품 수입은 한층 감소하였다. 그 후에도 생산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돼지고기와 가금육이었다.

<표 4> 러시아의 축산물 생산량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2015	2018	2019	2020
식육 계(만 톤)	1,564	934	703	773	7,055	1,284	1,340	1,488	1,516	1,564
쇠고기	733	478	333	320	303	285	282	280	283	284
돼지고기	468	257	215	209	310	381	395	480	503	548
양, 산양고기	88	59	31	34	41	46	45	48	47	46
가금육	255	126	112	197	388	559	604	667	671	673
우유(만 톤)	5,572	3,924	3,226	3,107	3,151	3,000	2,989	3,061	3,136	3,222
계란(억 개)	475	338	341	371	408	417	425	449	449	448

주: 식육 생산량은 생체중. ‘식육 계’에는 표 중에 기재한 주요 가축 이외의 고기도 포함.  
 자료: 1990-2018년은 EMISS, 2019년 및 2020년은 러시아 통계청(2021)에서 長友 작성. 長友謙治, [第5章] 러시아-코로나禍と食料安全保障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5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1.3에서 재인용

17)2020년 러시아 연방의 사탕무 파종면적은 927만 ha로(EMISS), 전년대비 19.1% 감소하였다.  
 18)2020년 사탕무 작황이나 설탕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는 쉬소예바(2020b) 및 가넨코(2020a)를 따랐다. 또한 설탕 소비자 가격은 2021년 2월 시점에서 2020년 12월 대비로는 97.6%로 약간 하락되었지만, 2020년 2월(전년 동월) 대비로는 164.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러시아 연방통계청 웹사이트).

2020년의 생산량(생체중 기준)은 가금육 673만 톤, 돼지고기 548만 톤이며, 2014년부터의 증가량(율)은 가금육 115만 톤(20.5%) 증가, 돼지고기 167만 톤(43.7%)이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계란은 2020년 생산량 448억 개로 2014년 대비 31억 개(7.4% 증가), 우유는 동 3,222만 톤으로 222만 톤(7.4%) 증가로 그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쇠고기(생체중 기준)은 동 284만 톤으로 2만 톤(0.7%) 줄었다.

축우(소) 부문(낙농·쇠고기 생산)은 1990년대 축소 후 오랫동안 정체가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완만하나마 생산 회복세가 분명해졌다. 우유 생산량은 2016년 2,979만 톤으로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그 후에는 2020년 3,222만 톤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쇠고기 생산량도 2017년 274만 톤을 바닥으로 하여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284만 톤이 되었다. 최근 보도된 어그로홀딩(Agro-holding, 농기업)에 의한 축우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가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sup>19)</sup>

<표 5>는 각 연말 현재의 가축·가금 마릿수 추이이다. 2020년 말의 수치는 소 1,806만 마리(그 중 암소 789만 마리), 돼지 2,586만 마리, 양·산양 2,194만 마리, 가금류 51,873만 마리였다.

<표 5> 러시아의 가축·가금 마릿수

(각 연말 현재, 단위: 만 마리)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2015	2018	2019	2020
소	5,704	3,970	2,752	2,163	1,979	1,892	1,862	1,815	1,813	1,806
그 중 암소	2,058	1,744	1,274	952	871	826	812	794	796	789
돼지	3,831	2,263	1,582	1,381	1,725	1,945	2,141	2,373	2,516	2,586
양, 산양	5,819	2,803	1,496	1,858	2,173	2,445	2,461	2,313	2,262	2,194
가금	65,981	42,260	34,067	35,747	44,971	52,425	54,391	54,145	54,469	51,873

자료: 1990-2019년은 러시아 연방 통계청 웹사이트, 2020년은 러시아 연방 통계청(2021)에서 長友 작성. 長友謙治, [第5章] ロシア—コロナ禍と食料安全保障—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5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1.3에서 재인용

이 중 전년 대비 마릿수가 증가한 것은 돼지뿐이다. 돼지 마릿수는 2004년 이후 대체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식품 수입금지 조치가 시작되었던 2014년과 비교하면, 2020년의 마릿수는 640만 마리(3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금류 마릿수는 2017년을 최고로 정점에 이르렀으며, 2019년에는 약간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그동안 가금육과 계란의 생산량은 약간의 증가 또는 보합 상태였다.

19) <표 4>와 관련하여 본문 중 생산량 증감 수치는 사사오입을 하였기 때문에 이 표에서 계산하는 값과는 약간 다르다. <표 5>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마리 수 감소를 마리당 생산량 증가로 보충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0년의 가금 마리 수 감소는 전년대비 4.8% 감소로 비교적 컸다. 그 원인으로서 2020년 가을 이후의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적되고 있다(쇼크로바, 2021). 이에 따라 향후 가금육이나 계란 생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소 마릿수는 소련 해체 후 계속되어 온 감소가 아직 명확하게 증가세로 돌아서지는 않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유 생산량이 2016년, 쇠고기 생산량이 2017년을 바닥으로 하여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소 마릿수가 농업조직(아그로홀딩 산하의 조직 포함)이나 농민 경영에서의 증가가 아직 주민 경영에서의 감소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소 마릿수가 전체 생산량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이 같은 변화의 동향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 3.2. 농수산물 무역 동향

여기에서는 농수산물(HS 1류~24류)의 품목별 무역동향에 대해서 고찰한 후, 최대 수출품목인 곡물 수출동향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 3.2.1. 농수산물 품목별 무역동향

러시아는 농수산물(HS 1류~24류) 전체로 보면 순수입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몇 차례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2014년 이후 대체적으로 농수산물 수입액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20년에는 총수출액이 296억 달러인데 반해 총수입액 297억 달러로, 순수입액은 1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과거 최소치인 수입 초과 수치였다. 국내생산 확대(곡물의 풍작), 루블화 약세, 곡물 등의 국제가격 상승,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수요 축소, 러시아 정부의 정책(유지종자 등의 수출규제, 식육 등의 수출촉진) 등이 복합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6>을 통해 2020년 러시아의 농수산물 무역에 발생한 변화를 전년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면, 2020년에 일어난 것은 농수산물의 순수입액(<표 6>에서는 마이너스 순수출액)의 대폭적인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초래한 것은 ① 순수출 품목에 있어서 순수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점과 ② 순수입 품목에 있어서 순수입액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각각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6> 러시아의 농수산물(HS 1-24) 무역 동향: 2019-20년

단위: 백만 달러

HS	품목	수출			수입			순수출액		
		2019	2020	변화	2019	2020	변화	2019	2020	변화
1	생축(산동물)	52	57	5	301	215	- 87	-249	- 158	92
2	고기	593	882	289	1,889	1,437	- 452	- 1,295	- 554	741
3	생선 등	4,665	4,637	- 28	1,807	1,682	- 125	2,858	2,955	97
4	낙농품 등	280	304	23	3,019	2,898	- 120	- 2,739	- 2,595	144
5	기타 동물산품	116	97	- 19	74	81	8	42	15	- 27
6	살아있는 식물	6	4	- 2	564	524	- 40	- 558	- 520	38
7	채소	471	489	18	1,840	1,729	- 111	- 1,369	- 1,240	129
8	과일	124	137	13	5,113	5,638	525	- 4,989	- 5,500	- 511
9	커피, 차 등	172	192	20	1,159	1,184	25	- 987	-992	- 5
10	곡물	7,932	10,126	2,194	281	328	46	9,650	9,798	2,148
11	곡분 등	330	359	29	121	113	- 8	209	246	37
12	유량종자 등	1,018	1,735	717	1,724	1,869	145	- 706	- 134	572
13	고무 등	11	10	- 1	232	217	- 16	- 221	- 206	- 14
14	기타 식물산품	19	18	- 1	7	11	4	12	7	- 5
15	동식물성 유지	3,441	4,271	830	1,275	1,402	127	2,166	2,869	702
16	육류 등 조제품	197	232	35	527	536	9	- 330	- 304	25
17	당류	520	737	217	363	315	- 48	157	422	265
18	코코아	730	743	13	1,250	1,222	- 28	- 520	- 479	41
19	곡물조제품	692	756	64	881	852	- 29	- 190	-96	94
20	채소 등 조제품	344	414	70	1,237	1,174	- 63	- 892	- 760	132
21	각종 조제식품	703	821	118	1,445	1,501	56	- 742	- 681	62
22	음료, 알코올 등	619	627	8	3,036	2,832	- 204	- 2,417	- 2,205	231
23	식품산업 잔류물 등	1,241	1,430	168	953	1,116	163	309	314	5
24	담배	544	540	- 4	875	842	- 33	- 331	- 302	30
계	계	24,841	29,616	4,775	29,973	29,717	- 256	- 5,132	- 101	5,031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통관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長友 작성. 長友謙治, [第5章] ロシア—コロナ禍と食料安全保障—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5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1.3에서 재인용

①의 순수출액 품목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0년에 순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HS 10류인 곡물, HS 15류인 동식물성 유지, HS 12류인 당류를 들 수 있다. HS 3류인 생선 등은 순수출액이 29.6억 달러로 곡물에 이어 크기는 하지만, 2020년의 순수출액 증가는 적었다.

HS 10류인 곡물은 농수산물 중 수출 초과가 가장 큰 품목이었다. 2020년 곡물 순수출액 98.0억 달러는 그 증가액(전년 21.5억 달러 증가) 크기가 24개 품목 중 최대였다. 이는 사상 두 번째의 수확량이었으며, 루블화 약세나 국제 가격 상승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HS 15류인 동식물성 유지는 주로 해바라기유 등과 같은 식물유가 대표적인 품목이다. 2020년 순수출액 28.7억 달러는 HS 10류, HS 3류에 이어 컸다. HS 15류의 2020년 수출액 증가(전년대비 7.0억 달러 증가)는 루블화 약세라는 요인 외에도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라시아 경제연합<sup>20)</sup>이 실시한 유라시아 종자 수출규제(4.1. 부분 참조)에 의해 수입국이 수입 품목을 원료인 유량종자에서 제품인 식물유로 전환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HS 17류인 당류는 2020년 순수출액이 4.2억 달러(전년대비 2.7억 달러 증가)이며, 최근 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졌던 사탕무로 만든 당(糖) 수출이 루블화 가치 하락과 맞물려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②의 순수입 품목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0년에 순수입액(<표 6>에서는 마이너스 순수출액)이 크게 감소한 품목은 HS 2류인 육류, HS 12류인 유량종자 등과 HS 22류인 음료, 알코올 등을 들 수 있다.

HS 2류인 육류에 대해 살펴보면, 2020년 순수입액은 5.5억 달러로 전년대비 7.4억 달러 감소하였다. 이는 수출액 증가(3.0억 달러 증가)와 수입액 감소(4.5억 달러 감소)에 따른 것이다. 전자는 가금육이나 돼지고기의 수출 확대, 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루블화 약세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후자인 코로나19 사태와 루블화 약세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의 사정은 HS 22류인 음료, 알코올 등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품목의 2020년 순수입액은 전년대비 2.1억 달러 감소한 22억 달러였다.

HS 12류인 유량종자 등에 대해 살펴보면, 2020년 순수입액은 1.3억 달러(전년대비 5.7억 달러였다. 이는 수입액 증가(1.5억 달러 증가)보다 많은 수출액 증가(7.2억 달러 증가)에 의한 것이다. 루블화 약세 등을 배경으로 한 수출 확대는 수출 규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20)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은 2015년 1월에 발족한 지역경제 통합으로, 현재의 가맹국은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의 5개국이다. 공통 수입 관세율을 갖춘 관세동맹으로, 노동력 이동의 자유화라고 하는 공동 시장의 요소도 가지고 있다. 한편 수출관세는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수입관세에도 일부 통일 및 불통일이 남아 있어 관세 동맹으로서 불완전한 측면이 남아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金野, 2019).

### 3.2.2. 곡물 수출동향

<표 7>은 러시아의 곡물 전체 및 주요 곡물별 수출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러시아의 곡물 수출은 2012/13년도에 가뭄 등에 의한 흉작으로 인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3/14년도 이후에는 하락세가 전환되어 호조를 계속 기록하는 곡물 생산을 반영하여 곡물 수출도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7/18년도 곡물 수출량과 수출량은 모두 사상 최고였으며, 수출량은 5,319만 톤에 달하였다.

<표 7> 러시아 곡물수출 (곡물 합계 및 주요 곡물별 내역)

	2015/16년도		2016/17년도		2017/18년도	
	수량 (만 톤)	구성비 (%)	수량 (만 톤)	구성비 (%)	수량 (만 톤)	구성비 (%)
곡물 합계	3,074	100.0	3,440	100.0	5,319	100.0
그 중 밀	2,186	71.1	2,502	72.7	4,096	77.0
보리	536	17.4	424	12.3	589	11.1
옥수수	296	9.6	474	13.8	590	11.1
	2018/19년도		2019/20년도		2020/21년도(2020년 12월까지)	
	수량 (만 톤)	구성비 (%)	수량 (만 톤)	구성비 (%)	수량 (만 톤)	구성비 (%)
곡물 합계	4,349	100.0	4,288	100.0	3,126	100.0
그 중 밀	3,534	81.3	3,399	79.3	2,582	82.6
보리	469	10.8	453	10.6	385	12.3
옥수수	276	6.3	405	9.4	136	4.3

주: 기간은 농업연도(각년 7월~다음해 6월). 2020/21년도 수치는 2020년 12월말까지의 값.  
 자료: 러시아연방세관청 ‘통관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長友 작성. 데이터는 2021년 2월 15일 액세스. 長友謙治, [第5章] ロシア—コロナ禍と食料安全保障—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5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1.3에서 재인용

2019/20년도 곡물 총 수출량은 4,288만 톤으로, 4분기 곡물 수출 쿼터 적용의 영향 때문인지 전년도보다 약간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내역을 살펴보면, 밀과 보리는 2019년 생산량이 전년을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은 각각 3,399만 톤, 453만 톤으로 전년도를 약간 밑돌았다. 한편, 전년의 흉작에서 생산량이 회복된 옥수수 수출량은 405만 톤으로 전년도를 웃돌았다.

2020/21년도의 곡물 수출에 대해 살펴보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연도 전반의 수출량(전년도 동기 대비 변화율)은 곡물 전체로는 3,126만 톤(23% 증가), 그 중 밀 2,582만 톤(21% 증가), 보리 385만 톤(62% 증가), 옥수수 136만 톤(15% 감소)이었다.

2020년 수확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옥수수 수확량이 전년 동기를 밀돌았던 점 외에는 전년도와 크게 웃도는 빠른 속도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루블화 약세와 국제가격상승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8>은 세계의 밀 무역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지위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 농업부(USDA)에 의하면, 러시아는 2017/18년도 및 2018/19년도에 밀 수출량 세계 제1위를 차지하였다. 2019/20년도에는 EU에 이어 제2위가 되었으나, 2020/21년도에는 <표 8> 작성 시점에서 예측치이기는 하지만, 러시아가 수출량 3,900만 톤으로 다시 세계 제1위의 밀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후술하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2021년 2월부터 밀, 호밀, 보리 및 옥수수를 대상으로 곡물 수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러시아의 밀수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표 8> 세계의 주요 밀 수출국

(단위 : 만 톤)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미확정)	
	세계 계	18,364	세계 계	18,278	세계 계	17,367	세계 계	19,152	세계 계	19,769
1위	미국	2,860	러시아	4,145	러시아	3,586	EU	3,843	러시아	3,900
2위	러시아	2,782	미국	2,466	미국	2,550	러시아	3,449	캐나다	2,700
3위	EU	2,744	EU	2,338	캐나다	2,438	미국	2,628	EU	2,700
4위	호주	2,264	캐나다	2,200	EU	2,331	캐나다	2,463	미국	2,681
5위	캐나다	2,022	우크라이나	1,778	우크라이나	1,602	우크라이나	2,101	호주	2,200

주 1: 기간은 시장 연도(각 년도 7월~다음해 6월).

2: 러시아의 밀 수출량 수치는 러시아 연방 세관청에 의한 <표 7>의 값과는 약간 다름.

자료:USDA, PSD Online 에서 長友 작성. 데이터는 2021년 3월 24일 액세스. 長友謙治, [第5章] ロシア—コロナ禍と食料安全保障—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5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1.3에서 재인용

아래 <그림 3>은 러시아 밀 수출의 지역별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러시아 밀의 최대 수출지역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이다. 러시아 밀 총수출량에서 차지하는 이 지역의 점유율은 수출량 증가와 함께 낮아져 가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2010/11년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하지만, 2018/19년도부터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9/20년도의 점유율은 55.5%를 기록하였다. 2020/21년도에는 2020년 7월~12월까지 53.1%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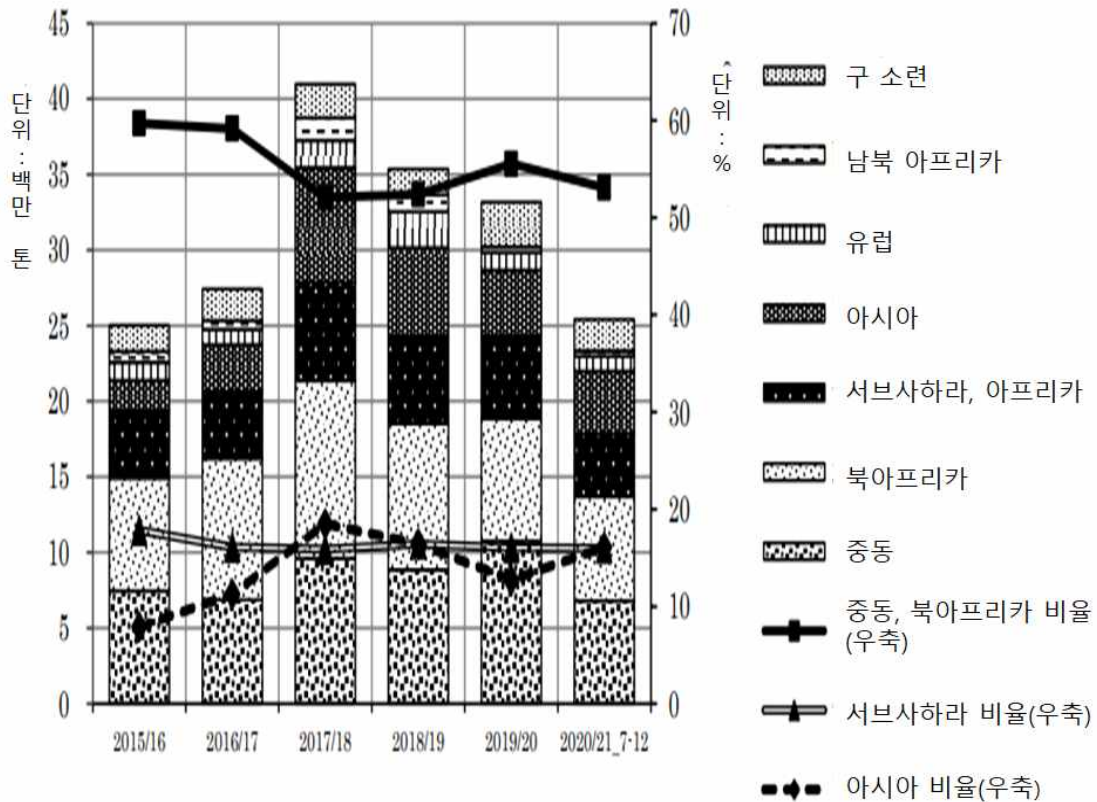
이 지역 중에서도 러시아로부터 특히 대량의 밀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와 이집트이다. 2019/20년도 러시아로부터 두 나라로의 수출량은 각각 795만 톤, 638만 톤에 달하였다.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의 점유율은 2019/20년도에는 16.1%로 전년도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다. 2020/21년도의 점유율은 2020년 7월~12월에 16.0%이다.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로부터의 밀 수출량이 100만 톤을 넘는 것은 나이지리아뿐이며, 수출 대상지역이 30개국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밀 수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낮은 상태로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점유율은 2017/18년도의 18.5%까지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고, 같은 해에는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을 웃돌았으나, 이후 낮아져 2019/20년도에는 12.7%로 다시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을 밀돌았다. 2020/21년도의 점유율은 2020년 7월~12월에 16.1%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밀 수출국은 15개국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각각 러시아로부터 1~2백만 톤 정도 밀을 수입하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량과 그 점유율이 변동하기 쉽다.

〈그림 3〉 러시아 지역별 밀 수출량 추이



자료: 러시아연방세관청 ‘통관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長友 작성. 長友謙治, [第5章] ロシア-コロナ禍と食料安全保障―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5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1.3에서 재인용

## 4. 러시아의 농업정책-2020년 동향

2020년 러시아의 농업정책에서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경제가 침체되고 국민생활도 큰 영향을 받는 가운데, 특히 농산물 무역정책에서의 식량 안전보장 중시로의 회귀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농업생산과 농산물 수출이 확대되어 농산물 수출의 진흥이 농정의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식량안전보장론은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농업정책의 근거에는 ‘식량안전보장 확보’가 항상 내재하고 있었으며, 국내의 정치·경제상황에 따라서는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전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음이 재차 밝혀졌다.

이 절에서는 곡물 등 수출규제조치 발동을 중심으로 2020년 러시아의 농업정책의 주요 움직임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 4.1. 곡물 등의 수출 규제 도입(2020년 4월~6월)

2020년 4월~6월(2019/20 농업연도 제4분기)에는 코로나19 유행에 관한 경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서 곡물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실시되었다.

먼저, 러시아연방정부에서는 밀 및 메슬린(밀과 호밀의 혼합물), 호밀, 보리 및 옥수수 등 4개 품목의 곡물에 대해서 유라시아 경제연합(가맹국: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역외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수출량을 7백만 톤으로 제한하는 수출 수량한도(쿼터)를 적용하였다.

또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는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채소(양파, 마늘, 순무), 곡물(호밀, 쌀, 메밀, 수수), 유량종자(대두, 해바라기), 곡물 가공품(분쇄곡물 등)에 대해서 역외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였다<sup>21)</sup>.

러시아의 곡물 수출 수량에 대해 살펴보면, 총량 700만 톤이라는 수량 자체는 과거 같은 기간 동안 수출 실적과 비교하여 특별히 적은 수량은 아니었다.<sup>22)</sup> 하지만, 수량 소화방법이 선착순이었기 때문에, 수출신고가 조기 쇄도하여 4월 26일까지 한도를 초과해 버렸다.

그 결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현물도 준비하고 있던 수출업자가 수출할 수 없게 되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가신고(假申告)의 형태로 쿼터를 가지고 있던 업자가 결국 수출을 중지하고 한도를 반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였다(리토비노바, 2020).

21) 모두 2020년 3월 31일자로 결정된 조치이며, 도입 경위나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Primaff)의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1号(2020.3), 2020년도 컨트리리포트(令和元年度カンントリーレポート: 米国, EU (CAP), フランス, 英国, CETA, ロシア(2020년 3월)의 ‘第6章 ロシア-農産物の輸出促進と政策目標-’ ([https://www.maff.go.jp/primaff/kanko/project/attach/pdf/200331\\_R01cr01\\_06.pdf](https://www.maff.go.jp/primaff/kanko/project/attach/pdf/200331_R01cr01_06.pdf))를 참고하기 바란다.

22) 2020년 4월부터 발동된 러시아의 곡물 수출 쿼터 대상 4종 곡물의 대상 기간(4~6개월)에 있어서의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 수출 실적은 최근 3년도(2017년 사상 최대 풍작으로 곡물 수출량이 급증한 2017/18년도를 제외하고, 2015/16, 2016/17 및 2018/19년도) 평균은 596만 톤이다.

러시아 통관통계에 의하면, 4~6월의 수출수량 쿼터 대상곡물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역외로의 수출 실적은 769만 톤이었다<sup>23)</sup>. 월별로 보면, 4월 649만 톤, 5월 83만 톤, 6월 37만 톤으로, 수출이 4월에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결과였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수출금지 조치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대두에 대하여 해당 조치를 당초 기한인 6월 30일 이전에 해제하였다.<sup>24)</sup>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바라기 종자에 대해 당초 조치가 끝난 후에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러시아의 유지작물연도(9월~다음해 8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역외 수출에 허가제를 적용하고 있다<sup>25)</sup>.

## 4.2. 곡물 등의 수출 규제 재도입(2021년 1월~)

2020/21 농업년도 러시아 곡물수출에 대해 살펴보면, 연도 개시 전 보도에서는 연방농업부가 곡물 수출업계에 대하여 ① 2020/21년도 전반(2020년 7~12월)에는 새로운 수출 쿼터를 적용하지 않고, ② 동년도 후반(2021년 1월~6월)에는 곡물 수확량 125백만 톤, 수출 여력이 45백만 톤을 넘는 경우에는 수출 쿼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나타낸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블라코바, 2020). 실제로는 2020/21년도 전반 중에는 러시아의 곡물 수출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하지만, 곡물 등의 주요 농산물 가격 상승이 진행되자, 12월에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을 강요당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곡물에 대해서는 루블화 가치 하락과 국제 가격 상승에 의하여 밀 수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밀 국내 가격이 급등하여<sup>26)</sup>, 밀 제품 가격이 상승하였다(상기 2.1의 3) 부분 참조). 게다가 여름 이후 건조한 기상이 계속되어 가을에 재배하게 되었다. 2021년산 겨울밀 등의 흉작 우려가 가격 상승에 박차를 가하였다. 유량종자에 대해서는 해바라기 수확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편, 해바라기 종자는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이 진행되어 국내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 때문에, 해바라기 종자는 유류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었다.

23)수출 실적이 쿼터인 700만 톤을 넘는 이유로는 쿼터 대상 외의 인도 원조에 관한 수출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수출 실적 수치는 러시아 연방 세관청 ‘통관통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2021년 2월 15일에 다운로드한 데이터로 長友 계산.

24)대두에 대해서는 우선 2020년 5월 4일부터 카자흐스탄산 대두에 대해 2만 톤을 한도로 하여 동국 정부의 담당기관의 승인 하에 역외수출을 허용하고(2020년 4월 21일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평의회 결정 제 57호(шени 4 Коллегии 57)), 나아가 6월 13일부터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을 정부 담당기관의 승인 하에 대두의 역외수출을 허용하였다(2020년 6월 2일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평의회 결정 제 71호(шени 6 Коллегии ЕЭК №71)).

25)해바라기 종자의 역외수출허가제 근거는 2020년 6월 16일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평의회 결정 제 78호(Решение Коллегии ЕЭК № 78). 이 허가제에 대해 쉬소예바는 “인위적인 금지조치였다. 회사는 어떻게 수출 허가를 받을지 몰라 당시 수출은 실질적으로 정지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러시아의 농업 조사회 사프로제르노의 페트리첸코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쉬소예바, 2020b: p.28).

26)러시아 밀 수출의 중심이 되는 4급 보통 밀의 생산자(농업조직) 판매가격은 2020년 7월 11,991 루블/톤에서 동년 12월에는 15,441 루블/톤까지 28.8% 상승하였다(수치는 EMISS).

한편,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커진 식물유 제조업체가 정부에 해바라기 종자 수출 규제를 요구하였다. 설탕의 사정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원료인 사탕무가 최근 생산 과잉과 가격 저하로 작부 면적이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건조 등에 따른 단수 저하가 이중 타격이 되어 수확량 감소가 컸다. 그 영향으로 설탕 가격이 상승하였다.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라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고 실업률이 상승하여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곡물, 식용유, 설탕과 같은 국민 생활상 불가결한 기초식품 가격이 치솟았다. 정치적인 민감성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던 것이다. 12월이 되자 사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정부에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대통령 지시를 받아 즉시 사회적 중요 품목(설탕, 해바라기유, 빵제품 등)의 소비자가격 억제를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잠시 줄거리를 약간 벗어나, 그 과정과 대책의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2020년 12월 9일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 각료 간 화상 회의가 열렸다. 제1부의 주요 의제는 ‘각 분야에서의 고도기술 발전’ 이었다. 그 중에서 파트르세프 농무장관이 2020년의 농업과 농정 성과에 대해 보고를 하였는데, ‘농업생산은 성장하고 있으며 농업정책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소련 시절에는 어떻게 말했는지 당신은 젊으니까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기억한다. 소련에는 다 있었다. 모두에게 전달이 안 되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는 부족해서 진행이 잘되지 않았다. 지금 물건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것은 특정 물품에 대해 시장 가격이 사람들에게는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하였다.<sup>27)</sup>

이어서 행해진 제2부 ‘경제 문제에 관한 회의’ 에서는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논리가 명쾌하게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그의 언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한다(문단 분류는 원문에 대응)<sup>28)</sup>.

- (1) “아주 중요하며, 러시아의 모든 가족에게 민감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것은 일자리와 소득 그리고 가격, 특히 기초적 품목의 가격이다.”
- (2)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일단 소득 아쉽게도 올해는 내려갔고, 노동시장은 공급 과잉이며 실업률은 4.7~4.8%로 억제하려 했지만, 6.8%로 상승하였다. 지금은 좀 내려가서 6.3%로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낮지만....”
- (3) “소득과 실업은 아직 이해할 수 있다. 국민도 이것은 객관적인 곤란에 의한 것으로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 (4) “기초 식품 가격은 어떤가. 이건 팬데믹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설탕은 어떤가?” 하고 물었다. 농무 장관은 “국내 생산은 국내 생산은 소비를 충당하

27)러시아 연방 대통령궁 웹사이트, 사건 2020년 12월 9일(1)

28)러시아 연방 대통령궁 웹사이트, 사건 2020년 12월 9일(2)

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그럼 어째서 가격이 71.5%나 오르는가? 다행히 보고에 의하면, 조금은 안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바라기유는 어떤가? 23.8% 상승하였고 계속 상승 중이다. 밀가루는 12.9%, 파스타는 10.5%, 빵은 6.3% 상승하였다. 이걸 왜 이런가?”

- (5) “물론 설명은 할 수 있다. 국제시장의 가격동향과 내수가격의 추종, 그리고 수출가능성의 추구이다.”
- (6)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목표를 넘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은 4.4%이고 목표는 4%이다. 물론 객관적인 요인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염병 유행 하에서 기업활동이 곤란하게 되어 있는 점, 그리고 루블화 가치 하락이다. 우리는 10월의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정부가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분석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오늘은 본 건에 관한 제안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용되는 조치는 모두 주도면밀하게 논의되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조치가 비즈니스의 현재 활동과 장래의 발전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익과 복지이다. 그러므로 결정은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하며, 적시적이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회의 다음날인 2020년 12월 10일 저녁에 ‘식품 가격 동향에 관한 회의’ 를 개최하고, 미슈스틴 수상으로부터 경제발전부, 재무부, 농업부 및 반독점청 관계 각료에게 대응책 제출을 지시한 바 있다.<sup>29)</sup> 이에 대해 12월 14일에는 ‘부총리와의 실무회의’ (수상, 부총리, 관계 장관 출석)가 개최되어 우선 레셰트니코프 경제발전부장관으로부터 대책의 전체상이 보고되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sup>30)</sup>

#### [레셰트니코프 경제발전장관의 발언 개요]

대통령의 지시와 10일의 회의(식품의 가격 동향에 관한 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중요 품목(설탕, 해바라기유, 빵 제품 등)의 소비자가격 억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

#### ① 당장의 가격 안정 조치

12월 20일까지 설탕 및 식물유 제조업체 단체 및 소매체인과 협정을 맺고, 이들 품목의 소매가격 인하와 소매체인 소매가격 제한을 실시한다. 협정은 2021년 제1분기 말까지 유효하다. 협정 체결의 책임은 농업부 및 경제발전성이 진다.<sup>31)</sup>

29)러시아 연방정부(수상관저) 웹사이트, 뉴스 2020년 12월 10일

30)러시아 연방정부(수상관저) 웹사이트, 뉴스 2020년 12월 14일.

31)長友 주: 이 협정은 12월 16일에 체결·공표될 때(연방농업부 기자 발표(2020.12.16), 연방농업부, 연방산업무역부, 대형 유통체인 및 제조업체 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소매 기준가격을 설탕 1kg당 46 루블, 해바라기 기름 1 리터당 110 루블로 하는 것 등이 합의되어 있다.

## ② 내년 추가적인 가격 안정 조치

### (설탕 관계)

- (1) 제당업자에 대해 원료인 사탕무 구입 자금에 관한 저리 용자(금리 1~5%)를 공여한다.
- (2) 내년 사탕무 파종 면적을 확대한다.

### (해바라기유 관계)

- (1) 해바라기 종자의 국내시장 안정대책으로서 금지적인 수출관세를 도입한다. 세율은 30%이다. 단, 최저 165유로/톤으로 한다.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9일~6월 31일까지이다. 정령은 12월 9일에 서명이 완료되었다.
- (2) 해바라기유의 수출관세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sup>32)</sup>.

### (빵, 밀가루 관계)

- (1) 곡물 수출 쿼터는 1,750만 톤으로 하고 관세는 쿼터 내에서는 25유로/톤, 쿼터 외에서는 50%로 한다. 단, 최저 100유로/톤으로 한다. 적용기간은 2021년 2월 15일~6월 30일까지이다. 정령안은 제출이 완료되었다.<sup>33)</sup>
- (2) 제분, 제빵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제분업자에 대하여는 식용 밀 구입비용, 제빵업자에 대하여는 밀가루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농업부가 정령안 제출을 완료하였다.<sup>34)</sup>

### (기타)

물가통제조치 발동기준 완화이다. 2008년 정령 530호에서는 사회적 중요 품목에 대해 긴급 시에 90일간 공정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서 가격 변동폭이 '30%'로 정해져 있었다. 이를 정부의 판단으로 '계절 변동을 제외하고 월간 10%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국제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국내소비자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변동억제적인 농업지지시스템을 농업부와 함께 검토하여 연말까지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제 다시 본 줄거리로 돌아와, 이하 그 중 대외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4.1.1. 유량종자 수출규제

최초로 결정된 수출규제 조치는 유량종자의 해바라기 및 해바라기유 수출관세 인상이었다. 러시아는 유량 종자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역내에서의 가공 촉진과 착유 원료 확보의 목표이며, 이제까지도 유량 종자인 해바라기와 해바라기유의 경제연합 역외 수출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32)長友 주: 본고를 집필한 2021년 3월말 시점에서는 미결정 상태였다.

33)長友 주: 정령은 곡물 수출쿼터가 2020년 12월 14일자 러시아 연방정령 제 2097호. 수출관세가 같은 제 2096호. 모두 공포는 12월 15일

34)長友 주: 정령은 2020년 12월 14일자 러시아 연방정령 제2095호

하지만, 2020년 12월 10일자로 2021년 1월 9일~6월 30일까지 수출세를 기존의 6.5%(단, 해바라기는 최저 9.75유로/톤, 해바라기유는 최저 11.4유로/톤)에서 30%(단, 모두 최저 165유로/톤)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sup>35)</sup>.

또, 유량종자 관계에서는 해바라기 및 해바라기유에 추가하여 대두에 대해서도 12월 31일자까지 수출관세에는 세금이 없었는데, 2021년 2월 1일~6월 30일까지는 30%(단, 최소 165유로/톤)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되었다<sup>36)</sup>.

이로써 러시아의 주요 유지작물은 모두 수출관세 대상이 되었다. 최저 165유로/톤이라는 관세액은, 예를 들어 2020년 러시아 대두 수출가격 평균 346달러/톤<sup>37)</sup>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목표로는 수출 금지조치에 가까운 고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 4.1.2. 곡물 수출 규제

곡물 수출 규제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2020년 12월에 조치를 결정하고(제1의 조치), 그 후 2021년 2개월에 걸쳐 잇달아 조치의 재검토를 반복하였다(제2 및 제3의 조치). 그 경위와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도입된 곡물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의 결정 후, 2021년 2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재검토가 실시되었다. 그 배경에 대해 레셰트니코프 경제발전부장관이 2021년 2월 4일에 행한 푸틴 대통령 보고<sup>38)</sup> 후의 기자회견에서 설명하고 있다.<sup>39)</sup> 이를 발췌하여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이러한 무역 관련이라고는 하지만, 파트르세프 농업부 장관이나 농업 담당인 아부람첸코 부총리는 농업 분야의 조치가 표면화되지 않았다는 등 레셰트니코프 경제발전부장관 주도 하에 결정된 것은 흥미롭다.

- (1)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상황을 보고 있는가? 첫째, 우리는 작년 말에 충분히 대규모로 복합적인 조치를 취했다. 즉, 해바라기 종자와 밀의 수출관세 도입, 제분·제빵 기업에 대한 보조금 배분 결정이다.”
- (2) “그러나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의 상황은 이미 취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세계시장에서 식품 가격의 활발한 상승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급의 곡물 수출국이므로 세계 가격의 상승이 국

35)해바라기 및 해바라기의 수출관세 인상은 2020년 12월 10일자 러시아연방 정령 제2065호(같은 날 공포)에 기초하는 조치. 해바라기유의 수출 관세 부과는 2021년 3월말 시점에서는 미결정

36)대두의 수출 관세 부과는 2020년 12월 31일자 러시아연방 정령 제 2397호 (2021년 1월 4일 공포)에 의거한 조치. 팔루힌(2020)은 유지제조업자 단체인 러시아 유지 연합(Масложировой союз России)이 현재로서는 대두의 국내 가격보다도 외국 시장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출이 진행되어 원료 확보가 우려된다고 하여 관계 부처에게 대두에 대하여 수출관세(세율 20%) 도입을 요청한 점, 대두에의 수출 관세 부과는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이 많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있어서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37)러시아연방세관청 ‘통관통계 데이터베이스’ (2021년 1월 31일 액세스)에 따르면, 2020년(1월~12월)에 수출관세의 대상이 되는 ‘종자용 이외의 대두’ (HS1201 90 000 0)의 평균 수출 단가는 346달러/톤 이었다(수출액 361백만 달러, 수출량 104만 톤).

38)러시아 연방 대통령궁 웹사이트, 사건 2021년 2월 4일

39)러시아 연방정부(수상부) 웹사이트, 뉴스 2021년 2월 4일

내의 곡물 가격 상승도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추가적인  
방책을 검토하였다.”

- (3) “그것이 ‘곡물 댐퍼(damper, 충격흡수장치)’ 라고 하는 구조로, 오늘 대통령  
에게 보고하고 양해를 받았다. 그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장기적인 기초 위에 곡물관세를 구축하는 것이다. 상기해 보면, 작년 말 우리  
는 2월 15일부터 25유로/톤의 수출관세<sup>40)</sup>를 설정하고, 2월 15일부터 6월 30일  
까지 1,750만 톤의 곡물 수출 쿼터를 적용하기로 하였다.<sup>41)</sup> 연초에는 이 조치  
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3월 1일부터 밀의 수  
출관세를 50유로로 인상할 것이라고 하였다.<sup>42)</sup> 그렇다면 수출업자나 곡물생산  
자는 6월 30일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제안  
되고 있는 변동 수출 관세이다.<sup>43)</sup>”
- (4) “곡물 댐퍼의 두 번째 부분은 돈을 농업에 되돌린다는 것이다. 대통령으로부  
터의 지시는 수출 관세로서 징수된 돈은 경종농업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형태  
로 농업으로 되돌리겠다.” 는 것이었다.

## 1) 제1의 조치

곡물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14일자로 밀과 메슬린(이하 ‘밀’), 옥수수, 보리  
및 호밀 등 4종의 곡물을 대상으로 2021년 2월 15일~6월 30일까지 수출 관세할당  
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상 곡물을 유라시아 경제연합 역외  
로 수출할 때 함께 1,750만 톤의 수출수량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의 수출에  
대해서는 밀에는 25유로/톤의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그 이외인 3종의 곡물은 무관세  
로 한다. 쿼터량 외의 수출에 대해서는 대상 곡물 전체에 50%(단 최저 100유로/톤)  
의 수출관세를 부과한다.<sup>44)</sup>

## 2) 제2의 조치

러시아 정부는 제1의 수출 관세할당 제도는 2021년 1월 23일자로 수정을 실시하  
였다(제2의 조치)<sup>45)</sup>.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밀에 대해서는 쿼터 내 수출관세를 2월 15  
일부터 28일까지는 당초와 같이 25유로/톤이지만,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50유  
로/톤으로 하며, 옥수수 및 보리에 대해서는 쿼터 내의 수출관세를 2월 15일부터 3  
월 14일까지는 기존 관세 그대로 적용하지만,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옥수수

40)역주: 밀의 수출관세

41)역주: 이 글의 ‘제1의 조치’

42)역주: 이 글의 ‘제2의 조치’

43)역주: 이 글의 ‘제3의 조치’

44)제1의 조치 중 곡물의 수출 수량 범위는 2020년 12월 14일자 러시아 연방정령 제2097호, 곡물에 대  
한 수출관세의 부과는 동 제2096호에 의한 조치

45)제2조치로서의 곡물 수출관세 재검토는 2021년 1월 23일자 러시아 연방정령 제33호에 의거한 조치

25유로/톤, 보리 10유로/톤으로 한다. 쿼터량 외 수출관세에는 변경이 없고, 대상 곡물 모두 50%(최저 100유로/톤)이다. 수출 쿼터량(1,750만 톤)은 상기 4가지 곡물의 2020년 2월~6월까지 수출 실적인 1,441만 톤<sup>46)</sup>보다 많지만, 개정 후의 수출관세는 3월 이후 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대상 품목의 수출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 3) 제3의 조치

러시아 정부에 의한 곡물 수출규제 재검토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1년 2월 6일자로 새로운 조치가 결정되었다<sup>47)</sup>. 이 조치는 곡물 수출 관세와 이를 재원으로 경종농업 생산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세트가 된 항구적인 조치이다. 이 조치는 곡물의 국제가격 급등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는 동시에 곡물생산 진흥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충격흡수장치(댐퍼)라는 의미인 ‘곡물댐퍼’라고 불린다.

곡물댐퍼에 있어서 수출관세는 곡물 수출가격 변동에 따라 관세액이 변동하는 ‘가변 수출관세’ (плавающая экспортная пошлина)와 수출량 쿼터를 조합한 구조로 보고 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① 대상 품목: 밀, 호밀, 보리 및 옥수수 4개 품목<sup>48)</sup>.
- ② 적용기간: 2021년 6월 2일부터(항구적으로 적용).
- ③ 관세액(율) 및 수출량 쿼터: 러시아 농업년도(매년 7월~다음해 6월)을 전제로 하여 아래의 쿼터를 설정
  - a. 연도 전반(7월 1일~12월 31일): 수출량 쿼터 한도 설정은 상정되어 있지 않다. 가변 수출관세(세액은 아래 ④ 참조)를 적용한다.
  - b. 연도 후반(1월 1일~6월 30일): 수출량 쿼터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쿼터 내 수출에는 가변 수출관세, 쿼터 외 수출에는 50%, 단 최저 100유로/톤의 수출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수출량 쿼터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변 수출관세가 적용된다.
- ④ 가변 수출관세의 세액: 가변 수출관세에 있어 톤당 수출관세액은 연방농업부가 아래의 식에 따라 매주 산출·공표한다. 밀, 보리 및 옥수수가 대상이 되며, 해당 식으로 산출한 값이 음이 되는 경우 수출 관세액은 0으로 설정한다.

$$\text{수출관세액[톤당]} = (\text{지표 수출가격} - \text{기준 수출가격}) \times 0.7$$

46)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으로의 수출을 포함한 총 수출량. 러시아 연방 세관청 통관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2021년 2월 15일에 다운로드한 수치를 기초로 長友 계산

47)제3의 조치는 2021년 2월 6일자 러시아 연방정령 제117호에 의거한 조치

48)곡물댐퍼의 대상 곡물 중 호밀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수출량 쿼터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의 쿼터 외 수출 관세(50%, 단 최저 100유로/톤)뿐이며, 가변 수출관세는 항상 제로이다. 또, 종자용 수출의 경우에는 모든 곡물이 곡물댐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a. 지표 수출 가격: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전국 상품거래소의 달러 표시 노보로스시스크 향 인도 FOB 가격 시세에 근거하여 연방농업부가 매주 산출·공표하는 값<sup>49)</sup>
- b. 기준 수출가격: 밀은 200달러/톤, 보리, 옥수수는 185달러/톤.

#### 4) 2021년의 곡물 수출 규제: 정리와 고찰

이상과 같이 러시아의 곡물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이후 제1의 조치로부터 제3의 조치까지 제도의 도입과 재검토가 연달아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21년 제도의 적용 상황이 복잡해져 매우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밀을 예로 들어 2021년 연도 중의 제도와 그 적용 관계를 정리하여 <그림 4>에 표시하였다.

제도가 바뀌는 6월 이후를 설명하면, 6월 2일~30일은 수출 관세할당 제도인 1,750만 톤의 수출량 쿼터가 살아 있으며, 그 쿼터 내의 수출에는 가변 수출관세, 쿼터 외의 수출에는 50%(최저 100유로/톤)의 쿼터 외의 수출관세가 적용된다. 7월 1일부터는 수출량 쿼터 한도가 없어지고, 12월 31일까지 가변 수출관세 제도만 적용된다<sup>50)</sup>.

<그림 4> 러시아의 2021년 곡물 수출 규제 개요(밀의 경우)

시기	2021.2.15-2.28	3.1-6.1	6.2-6.30	7.1-12.31
제도	수출관세 할당제도			가변수출관세제도
세 율 (액)	수량쿼터	1,750만 톤(대상 곡물 합계)		
	쿼터 내	25유로/톤	50유로/톤	(지표수출가격 - 200달러/톤) × 70%
	쿼터 외	50% (최저 100유로/톤)		

자료: 각 규제의 근거가 되는 러시아 연방 정령에서 長友 작성. 長友謙治, [第5章] ロシア—コロナ禍と食料安全保障—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プロ研究資料 第5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1.3에서 재인용

가변 수출관세 제도에 의한 과세액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상기 ‘지표 수출가격’을 러시아의 통관통계로부터 산출한 밀의 평균 수출가격을 대체하여 나타내면,

49) 가변 수출관세의 톤당 세액에 대해 연방농업부에 의한 공표·적용은 2021년 6월 2일부터이지만, 지표수출가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산출·공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표 수출가격’은 원어로 ‘지표 가격’(индикативная цена)이지만,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는 관점에서 원저자인 長友가 ‘수출’이라는 용어를 보완하였다.

50) 2022년 1월 1일~6월 30일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6일자 러시아 연방정령 제117호에 따르면, 수출량 쿼터 한도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수출관세는 2021년 6월 2일~30일과 동일(쿼터 내에는 가변 수출관세, 쿼터 외 수출관세는 50%(최저 100유로/톤))가 되고, 수출량 쿼터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12월 31일과 마찬가지로 가변 수출관세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20년도에는 연도 전체 평균이 200달러/톤이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연속적으로 200달러/톤을 넘었는데, 최고치는 2020년 2월 및 3월의 218달러/톤이었다. 이 때의 수출관세액은 최대 12달러/톤 정도가 된다.

한편, 2020/21년도(7월~12월까지) 밀의 평균 수출 가격은 212달러/톤으로, 2020년 10월 이후 톤당 200달러를 넘었다. 12월에는 톤당 240달러에 달하며,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28달러/톤의 수출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 4.3. 러시아의 곡물 수출 규제 경위

<표 9>는 러시아가 곡물 순수출국으로 전환된 2000년대 초반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발동해온 곡물수출 규제를 모두 정리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러시아 곡물 수출규제 중에서, 밀의 수출이 거의 정지되었던 적은 2010년 8월~2011년 6월의 곡물 수출 금지 조치(<표 9> ③의 조치) 이외에도 <표 9>의 ②의 조치가 강구된 바 있었던 기간이었다.

시기 중 2007/08년도의 제4사분기(2008년 4~6월) 당시 수출관세는 40%(최저 105유로/톤)와 <표 9>의 ①의 조치가 강구된 2003/04년도의 제3 및 제4분기(2004년 1~6월 수출관세는 25유로/톤)이며, 그 이외의 시기는 규제조치에 의한 수출량 감소는 있었지만, 수출은 그 나름대로 계속해 왔다.

러시아의 곡물 수출 규제는 2010년 곡물 수출금지 조치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 조치 등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후에는 최대한 수출제한을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정·운영되어 왔다. 2021년 곡물 수출규제가 과거의 수출 규제와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에 대해, 밀을 예로 들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021년 2월 이후 적용되고 있는 밀 수출관세를 2020년 10월~12월의 평균 수출가격인 224달러/톤<sup>51)</sup>을 전제로 하여, 이를 종가세로 환산하면 대략 이하의 세율에 상당한다.

- 2021년 2월 15일~28일 ‘25유로/톤’ : 약 13%
- 2021년 3월 1일~6월 1일 ‘50유로/톤’ : 약 27%
- 2021년 6월 2일~가변 수출관세: 약 8% (지표 수출가격을 224달러/톤으로 계산).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수출관세 수준은 <표 9>와 같으며, 그 중 비종가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가세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 <표 9>의 ④ ‘15%+7.5유로/톤(최저 35유로/톤)’ : 약 19%
- <표 9>의 ⑤ 상단 ‘과세가격의 50%-5,500 루블/톤(최저 50루블/톤)’ : 약 4%
- <표 9>의 ⑤ 하단 ‘과세가격의 50%-6,500 루블/톤(최저 10루블/톤)’ :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기간에 최저 세액인 10루블이 적용되고 있으며, 0%에 가깝다.

51)러시아 연방 세관청 통관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長友 계산

<표 9> 러시아의 곡물 수출 규제 목록

조치	대상품목	관세율 등	적용기간	배경			
① 수출관세	밀, 호밀	25유로/톤	2004.1.16.-5.1	2003년 흉작으로 공급부족			
② 수출관세	밀	10% (최저 22유로/톤)	2007.11.12.-2008.1.28.	국제적인 곡물가격 급등			
		40% (최저 105유로/톤)	2008.1.29.-6.30.				
	보리	30% (최저 70유로/톤)	2007.11.12.-2008.6.30.				
③ 수출금지	밀 보리 호밀 옥수수, 소맥분 등	대상곡물 수출금지	2010.8.15.-2011.6.30.	2010년 흉작으로 공급부족			
④ 수출관세	밀	15%+7.5유로/톤(최저 35유로/톤)	2015.2.1.-5.14.	루블화 약세에 의한 수출진전과 국내가격 상승			
⑤ 수출관세	밀	과세가격의 50%-5,500루블/톤(최저 50루블/톤)	2015.2.1.-5.14.				
		과세가격의 50%-6,500루블/톤(최저 10루블/톤)	2015.10.1.-2016.9.22.				
⑥ 수출량 쿼터	밀, 호밀, 보리, 옥수수	대상곡물 총수출량 상한 700만 톤	2020.4.1.-6.30.	위의 내용과 더불어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수출과 국내 안정공급 병행)			
⑦ 수출금지	호밀, 쌀, 메밀, 수수 등	대상곡물 수출금지	2020.4.12.-6.30.	EAEU에 의한 코로나19 대책의 일환			
⑧ 수출 관세 할당	밀, 호밀, 보리, 옥수수	수출량 쿼터	대상곡물 총수출량 1,750만 톤	2021.2.15.-6.30.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소득저하 하에서 국내가격 상승 저지(국제가격 상승과 루블화 약세에 의한 수출의 가속기 배경으로 판단)		
		쿼터 내 수출 관세	밀	25유로/톤		2021.2.15.-2.28.	
				50유로/톤		2021.3.1.6.1.	
		쿼터 내 수출 관세	보리	무세		2021.2.15.-3.14.	
				10유로/톤		2021.3.15.-6.1.	
				옥수수		무세	2021.2.15.-3.14.
				25유로/톤		2021.3.15.-6.1.	
		호밀	무세	2021.3.15.-6.1.			
쿼터외수출세	50% (최저 100유로/톤)	2021.2.15.-6.30.					
⑨ 가변 수출 관세+수출 관세 할당	밀, 호밀, 보리, 옥수수	가변수출관세	수출관세액(톤당)=(지표수출가격-기준수출가격)×0.7 *기준수출가격: 밀 200달러/톤, 보리, 옥수수 185달러/톤	· 연도 전반 (7.1-12.31): 수출량쿼터 없이 가변 수출관세 · 연도 후반(다음해 1.1.-6.30): 수출량쿼터+가변 수출관세 또는 수출쿼터 없이 가변 수출관세	국제가격 급등의 국내영향을 완화하는 항구적 조치이며, 수출관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내지원과 세트(곡물멤버)		
		수출량 쿼터(쿼터 내: 가변 수출관세, 쿼터 외: 50%(최저 100유로/톤))					

주 1: 노란색 그물모양인 ① 및 ③은 규제 조치 배경에 러시아 국내 흉작으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가 있었던 케이스임.  
 2: 밀은 모두 메슬린(밀과 호밀의 혼합물)을 포함  
 3: ④ 이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역외로의 수출을 대상으로 함. ①~③은 러시아 국외 수출이 대상.  
 4: ⑦은 EAEU에 의한 조치. 그 외는 러시아 단독 조치.  
 5: ⑨의 내용은 2021년 7개월 이후의 항구적인 조치를 기술. 2021년 6월 2일~30일의 이행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그림 4> 및 본문의 관계부분을 참조할 것.  
 자료: 각 규제의 근거가 되는 러시아 연방 정령 등을 참고하여 長友 謙治, 『第5章 ロシア—コロナ禍と食料安全保障—』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5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1.3에서 재인용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 2021년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50유로/톤’은 <표 9>의 ②(2008년 1월 29일~6월 30일)의 ‘40%(최저 105유로/톤)’(당시는 밀 수출이 거의 정지됨)에 이은 수준으로, 수출을 상당히 강하게 억제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2021년 6월 2일 이후 적용되고 있는 변동 수출관세에 대해 살펴보면, 톤당 관세 부담은 밀의 경우 평균적인 수출 가격과 200달러/톤과의 차액의 70%가 되므로, 부담의 정도는 수출 가격 동향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연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 당분간은 밀 가격은 국내·수출가격 모두 내려가므로, 관세 부담은 있어도 가벼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가격은 그 후 점차 상승하기 때문에 적용 당시의 관세 부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곡물 생산자나 수출업자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 4.4. 식품 수입 금지 조치의 연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즈음하여 유럽 각국에서 강구된 경제제재에 대한 대항 조치로 2014년부터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하였으며, 그 후에도 대상 품목이나 대상국을 늘려가는 조치를 계속해 왔다. 이는 바로 전에 이루어졌던 2019년 6월 조치의 연장으로, 이 조치의 적용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에 조치가 1년간 연장되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결정되었다. 지난번 연장에 이어 대상국이나 대상 품목에 변경은 없는 실질적인 단순 연장이다<sup>52)</sup>.

대상국은 미국, EU 회원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영국 등이며, 대상 품목은 육류(소, 돼지, 가금류), 수산물, 우유·유제품, 채소, 과일, 소금, 기타로 나뉘어져 있다.

### 5. 맺음말

러시아는 2018년 5월 대통령령으로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방침 하에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크게 노력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침체 상태의 상황에서 식품가격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곡물이나 유량종자에 대한 수출제한 강화로 전환하였다.

<sup>52)</sup>이번 식품수입금지조치 연장은 2020년 12월 9일자 러시아 연방 정령 제2054호에 의한다. 이번 연장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EU 가맹국’에 포함되는 형태로 대상이 되었던 영국이 EU를 이탈함에 따라 대상국으로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

목표로는 빵 등의 기초적인 식품의 가격·수량 양면에서 안정공급 확보라는 명제가 있으며, 국민생활이 향상되는 가운데 뒤로 밀려있던 것이 위기적인 상황 하에서 다시 전면에 대두된 형태이다. 이는 경기 침체 하에서 기초적인 식품의 가격 급등이 국민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사태를 피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내정적 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내정 중시의 대응에 의해 곡물 등의 수출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곡물 수출 대국’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더욱 발전할 길을 좁히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수출규제가 운용되어 가야만이 과도한 내정 중시에서 규제 강화로 기울어져 가는 사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관련된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일본어 문헌】

- 金野雄五(2019), 「ユーラシア経済連合ー結合の現段階と一帯一路との関係ー」, 『比較経済研究』第56巻第2号: 23-35, 比較経済体制学会.
- 金野雄五(2020a), 「COVID-19とロシア経済ー感染拡大に原油安が追い打ち」, 『みずほインサイト 欧州』, 2020년 7월 7일号, みずほ総合研究所.
- 金野雄五(2020b), 「回復が遅れるロシア経済ー国産ワクチンを開発も, 普及には遅れ」, 『みずほインサイト 欧州』, 2020년 12월 16日号, みずほ総合研究所.
- 田畑伸一郎(2020), 「想定通りの低成長となったロシア経済」, 『ロシア NIS 調査月報』, 2020년 5월号: 2-25, 러시아NIS貿易会.
- 長友謙治, [第5章] 「ロシアーコロナ禍と食料安全保障ー」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5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Primaff), 2021.3
- 長友謙治,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1号(2020.3), 2020년도 컨트리리포트 (令和元年度カントリーレポート: 米国, EU (CAP), フランス, 英国, CETA, 러시아(2020년 3월) ‘第6章 러시아-農産物の輸出促進と政策目標-’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所(Primaff), 2020.3

### 【영어문헌】

- Johns Hopkins University, Coronavirus Resource Center.  
[<https://coronavirus.jhu.edu/>] (2021년 3월 26일 참조)
- USEIA (US Energy Information Agency), Cushing, OK Crude Oil Future Contract 1 (Dollars per Barrel)  
[<http://tonto.eia.gov/dnav/pet/hist/LeafHandler.ashx?n=PET&s=RCLC1&f=D>]  
(2021년 1월 2일 참조)
- USDA, PSD Online, Custom Query.  
[<https://apps.fas.usda.gov/psdonline/app/index.html#/app/advQuery>](2021년 3월 24일 참조)

【러시아어 문헌】 본문에서는 번역본 저자명(간행년도) 또는 항목 말단부에 표시한 【 】내의 두 가지 형태로 인용.

Бурлакова Е (2020), Квота на экспорт зерна в новом сезоне может не приме

няться - Для этой стране надо собрать урожай в 125 млн тонн Введомости 29. 06.2020.(블라코바(2020), 「곡물 수출쿼터는 신년도에는 적용 안될 지도-이를 위해 우리나라(러시아)는 125백만 톤 이상을 생산해야 할 것」, 『웨도모스티』 (인터넷판) 2020년 6월 29일)  
[https://www.vedomosti.ru/business/articles/2020/06/30/833661-kvota-na-eksport-zerna]  
(2021년 2월 23일 참조)

Ганенко И. (2020a), Свекловодам выдуло урожай, Агроинвестор, 2020.8, С. 44-51. (가넨코(2020a), 「テンサイ生産者は収穫を吹き飛ばされた」, 『アグロインヴェストル(어그로인베스틀)』 2020년 8월호 : 44-51.)

Ганенко И. (2020b), На рынке подсолнечника -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ь, Агроинвестор, 2020.9, С. 36-42. (가넨코(2020b), 「ヒマワリ市場には不確実性」, 『アグロインヴェストル(어그로인베스틀)』 2020년 9월호: 36-42.)

Ганенко И (2020c), Опять почти рекорд- Российский урожай зерна пре высит 130 млн тонн, Агроинвестор, 2020.11, С. 14-21. (가넨코(2020c), 「再びほぼ記録的に-ロシアの穀物収穫量は130百万トンを上回る見込み」, 『アグロインヴェストル(어그로인베스틀)』 2020년 11월호: 14-21.)

ЕМИСС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성청간 정보통계 시스템) 【EMISS】 [http://www.fedstat.ru/indicators/start.do](2021년 2월 23일 참조)

Литвинова Е (2020), Экспортеры зерна начали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выбранной квоты, Агроинвестор 08.05. 2020.(리토비노바(2020), 「수출업자는 확보한 쿼터를 실현하기 시작」 『어그로인베스틀』 웹사이트, 2020년 5월 8일)  
[https://www.agroinvestor.ru/markets/news/33672-eksportery-zerna-nachali-otkazyvatsya-ot-vybrannoy-kvoty/]  
(2021년 2월 23일 참조)

Минсельхоз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Ф),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http://mcx.ru/] 【러시아 연방 농업부 웹사이트】

Пресс-служба (16 декабря 2020), Подписаны соглашения о стабилизации цен на сахар и подсолнечное масло. (연방 농업부 기자회견(2020.12.16.), 「설탕 및 해바라기유 가격안정에 관한 협정에 서명」 [https://mcx.gov.ru/press-service/news/podpisany-soglasheniya-o-stabilizatsii-tszen-na-sakhar-i-podsolnechnoe-maslo-61305/] (2021년 2월 23일 참조)

Полухин А (2020), Сое закрывают границу - Переработчики призывают установить пошлину на экспорт, Коммерсантъ 02. 12. 2020. (팔루힌(2020), 「대두에는 국경이 폐쇄-가공업자는 수출관세 설정을 요청」, 『코메르산트』 (인터넷판), 2020년 12월 2일.) [https://www.kommersant.ru/doc/4595418] (2021년 2월 23일 참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러시아 연방정부 (수상부) 웹사이트】 (2021년 2월 23일 참조)

- Новости, 10 декабря 2020 года, «Совещание о динамике цен н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е товары» (뉴스 2020년 12월 10일, 「식품 가격에 관한 회의」) [<http://government.ru/news/41085/>]
- Новости, 14 декабря 2020 года, «Оперативное совещание с вице-премьерами» (뉴스 2020년 12월 14일, 「부수상과의 실무회의」) [<http://government.ru/news/41107/>]
- Новости, 4 Февраля 2021 года, «Брифинг Министр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Максима Решетникова» (뉴스 2021년 2월 4일 「막심 레셰트니코프 경제발전부 장관 기자 브리핑」) [<http://government.ru/news/41461/>]
-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러시아 연방 대통령궁 웹사이트】 (2021년 2월 23일 참조)
- События, 9 декабря 2020 года, «Совещание с член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기사 2020년 12월 9일(1), 「정부 관료와의 만남」)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64623>]
- События, 9 декабря 2020 года, «Совещание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기사 2020년 12월 9일(2), 「경제문제에 관한 회의」)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64624>]
- События, 4 Февраля 2021 года, «Рабочая встреча с Министр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Максимом Решетниковым» (기사 2021년 2월 4일 「막심 레셰트니코프 경제발전부 장관과의 실무적 대면회의」)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64965>]
- Росстат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Официальный интернет-портал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 【러시아 연방 통계청 웹사이트】 (2021년 2월 23일 참조)
- Росстат (2021), Производство продукци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и численность скота в хозяйствах всех категорий з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9 года. (러시아 연방 통계청 (2021) 「모든 유형의 농업생산주체에 있어 2020년 1월-12월의 축산물 생산과 가축두수」.)
- Сысоева И. (2020a), Маржа в початках, Агроинвестор, 2020.11, С. 46-52. (쉬소예바(2020a), 「穂の中に利潤が」 『アグロインヴェストル(어그로인베스틀)』 2020년 11월호 : 46-52.)
- Сысоева И. (2020b), Цены выросли, а доход под вопросом, Агроинвестор, 2020.12, С. 26-32. (쉬소예바(2020b), 「価格は上がったが収入は？」 『アグロインヴェストル(어그로인베스틀)』 2020년 12월호: 26-32.)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07.05.2018 № 204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а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4 года (2018년 5월 7 일자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2024년까지의

러시아 연방 국가목표와 전략적 과제에 대하여」.) 【2018년 5월 대통령령】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https://www.cbr.ru/]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웹사이트】 (2021년 1월 2일 참조)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РФ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https://customs.gov.ru/]  
 【러시아 연방 세관청 웹사이트】 (2021년 2월 15일 참조)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РФ База данных тамож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в  
 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http://stat.customs.ru/apex/f?p=201:2:672649820124882::NO]  
 【러시아 연방 세관청 「통관통계 데이터베이스」】 (2021년 2월 15일 참조)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РФ Таможенная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й то  
 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 세관청 「통관통계」】  
 Шокурова Е. (2021), Эксперты в России вырастут цены на яйца и кур  
 ицу, Агроинвестор, 17.02. 2021. (쇼크로바 (2021) 「전문가 : 러시아에  
 서는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올라」, 『어그로인베스톨』 웹사이트, 2021년 2월  
 17일.) [https://www.agroinvestor.ru/analytcs/news/35304-eksperty  
 v-rossii-vyrastut-tseny-na-yaytsa-i-kuritsu/] (2021년 2월 23일 참조)

네이버블로그 피어슨 블로그, ‘2021년 6월 국제유가 추이와 전망’, 2021년 6월 17일 게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https://www.mois.go.kr/)  
 러시아 연방 통계청 웹사이트(rosstat.gov.ru)  
 환율플러스 앱